

“인앱결제 논란 핵심은 ‘강제 금지’... 법안 처리 시급”

야당 ‘구글 수수료 인하’ 성명에 인터넷업계 ‘본질 흐리기’ 비판
“결제 중속되면 결국 수수료 올라”
美 하원서도 ‘강제 금지법’ 통과
통상마찰 명분 사라졌지만 ‘발목’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야당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업계 반발이 거세다. 인터넷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라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업계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 수수료 15% 이하 인하’ 성명을 발표하자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한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는 개발자와 소비자에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 및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인터넷기업은 수수료 인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는 환영할 일이지만 특정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못하면 앱 개발사는 다른 결제 수단보다 비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수료 인하보다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

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으면서 근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형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9일 “인앱결제 이슈의 본질은 결제수단 강제를 막고 개발사에 결제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는 구글 인앱결제에 계속 중속된다는 것으로, 근시안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통상마찰 우려,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 입장 전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글이 일부 의원실에 수수료 인하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산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로 태세를 전환한 것은 본질 흐리기가 목적인데 일부 의원이 이에 힘을 실어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수수료 인하 성명을 발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통상마찰의 명분이 사라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수수료 인하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에 30% 수수료가 과도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애플처럼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공청회에서 나온 찬



코로나 확진자 관리, 빈틈 없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진자 정보 관리 모니터링에 매진하고 있다. 9일 강원 원주 심평원 정보통신기술(C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연구원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이용해 확진자 정보, 접촉자, 요양기관 이용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원주(강원)=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반양론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줄속으로 처리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시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업계는 수수료와 관계없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중소 업체 가운데에는 수수료율이 높아도 편리성 때문에 구글 인앱결제를 쓴다는 곳도 있다”면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 아닌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앱 시장 수수료율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자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15% 등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수수료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중점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해 구글플레이 유통 콘텐츠

에 수수료율 30%인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가리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화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7건이나 발의됐다. 구글은 논란이 커지자 정책 적용 시점을 올해 10월로 연기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졌다. 과방위 다음 법안소위는 오는 11일 열린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리 국영 원전기업, ‘K-배터리’ 품었다

로스톰, 에너테크 지분 50% 인수
첨단 제조업 육성에 시너지 노려
‘하이니켈 기술’ M&A 대상 떠올라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스톰이 한국의 배터리 전문 업체 에너테크인터내셔널을 인수한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이뤄진 한국 배터리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다.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배터리 제조 기술이 글로벌 M&A 대상으로 떠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로스톰은 최근 미국 투자기업 TBG로부터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지분 50%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TGB는 미국 에너지 업체 에너원의 투자 관계사다. 에너테크는 삼성의 방계 그룹이던 새한미디어가 전신으로, 지난 2010년 유동성 위기를 맞아 에너원에 인수됐다.

총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스톰은 미국 TBG와 에너테크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다. 에너테크 경영권을 인수한 로스톰은 조만간 대표이사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테크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다. 충북 충주에 연간 2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러시아 전기차와 전기버스에 파우치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로스톰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첨단 제조업을 육성한다. 에

너테크는 2001년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전기버스에 처음 탑재했다. 에너테크 배터리는 세계 시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로 구성된 전기차용 배터리다.

로스톰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기차·신재생 등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한다. 특히 러시아 자동차 업체 BKM에 에너테크가 생산한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BKM은 내연기관 기반 관용차를 친 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2016년 에너테크 NCM622 배터리는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탑재됐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용 관용차에 에너테크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로스톰은 에너테크의 NCM811(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배터리를 내년 푸틴 전용 관용차 탑재를 시작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스톰은 러시아에 2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공장을 세워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공략할 방침이다. 내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생산 능력은 2GWh(기가와트시) 규모이며, 추후 확대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6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톰은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을 활용, 중국·일본 배터리 경쟁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한국 배터리 기업 인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3

사를 제외하고 니켈 80% 조성의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 구현이 가능한 기업은 많지 않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이 중국 리튬이온전(LFP) 배터리보다 높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과 중국·일본 배터리 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한참 못미쳐 관용차 교체 프로젝트 중심으로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미래기업 포커스

올해 위조품 모니터링 e커머스 100여곳 확대 마크비전

마크비전(대표 이인섭)이 올해 위조 상품 모니터링이 가능한 e커머스 플랫폼을 100여곳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마크비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다.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상품 외관과 가격 및 구매 후기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온라인 위조 상품을 적발하고, 신고까지 자동 처리해 준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네이버, 쿠팡 등 10개 국가 25개 e커머스 플랫폼에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크비전 개요	
설립연도	2019년 1월(대표 이인섭)
업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임직원 수	20명 MAROVISION
매출액	2021년 100억원(목표)
주요 제품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자동화 플랫폼

마크비전 위조 상품 모니터링 솔루션은 반복 탐색, 신고, 제거 절차를 자동화해 수작업 대비 적발 시간을 3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최대 50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 지 6개월 만에 탈프로렌코리아, 라코스테, 삼양식품 등 40여개 국내외 브랜드를 고객사로 유치했다. 매출도 월평균 200% 증가세에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WC)의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돼 투자 유치까지 성공했다.

마크비전은 올해 말까지 AI 모니터링 솔루션을 기존보다 4배 늘어난 100여개 e커머스 플랫폼에 확장 연동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유관 기관 및 기업들과 브랜드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대한민국 표준
데이터 복구
최고의 복원 능력
디지털 포렌식
(주)명정보기술 | 1577-1377
www.myung.co.kr | 080-777-9119

3가지 기능이 동시에 지원되는
신개념 일체형 컴퓨터
✔ 피벗
✔ 엘레베이션
✔ 틸트
TG상보

IRIENCE
eye Master
아이마스터

건설현장을 위한
스마트 출역관리

- 홍채인식기를 통한 출역관리
- 컨테이너 및 텐계이트를 통한 출입통제 관리
-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현장 안전 강화
- ERP 연동을 통한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실의특화용(실내가능)
IRIS SCOPE (아이리스 스코프)

- 세계 유일의 경통형 ONE-EYE 카메라
- 실외인증 가능(날씨, 환경 무관)
- 얼굴이미지 캡처/저장

실내용
EYE MASTER

- 양쪽 눈을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 인증
- 비접촉 방식의 높은 보안성
- 얼굴이미지 캡처/저장

- (주)이리언스 회사소개
자체 개발한 세계적인 수준의 홍채인식 알고리즘으로 지난 10년간 국내외에 홍채인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기업
- 성능평가 및 인증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성능평가 인증
· 표준적합성 인증
금융결제원
·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통과
· 홍채 알고리즘 성능인증
NIST 미국표준연구원
· IREX IX 홍채인식 우수평가
(홍채특징 추출 및 속도부분등)
- 홍채인식 원리
IR 카메라로 홍채이미지 촬영 → 촬영된 홍채 이미지에서 코드 추출 후 등록 → 등록된 홍채코드와 비교하여 인증 시 확인여부 판독

✓ **제품 구매 문의**
(주)이리언스 www.irience.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가산동, 남성프라자) 510호
문의전화 02-6239-3100

IRIENCE
HIGH SECURITY SOLUTION GROUP